

2008 축산예산 어떻게 쓰여지나?

FTA 보완대책...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1,029원 등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자금 651억원 편성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지원 규모에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축산분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발표됐다. 내년도 축산부문 총 사업규모는 9천8백8억원으로 올 예산 7천7백38억원 대비 26.7%, 2천7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내년 농림부 축산부문을 살펴보면, 오는 2012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사업 부문의 예산은 2백54억원 증액되었으나, 강제폐기보상금 3백억원이 줄어들어 오히려 농특회계 사업규모는 금년 대비 1.5%, 25억원 감소했다.

반면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촉발기금 및 FTA 기금 사업규모는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금년 6천36억원보다 35% 증액된 2천1백9억원이 늘어났다.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사업 지원 확대

올 축산부문의 예산은 FTA 관련한 예산안의 증액이 눈에 띄는 가운데 내년도 일반 지출 예산 중 축산 예산은 가축분뇨를 경종농업과 연계, 자원화 촉진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 가축분뇨 감축 및 퇴액비 이용 활성화 유도로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축산분뇨처리 시설 관련 지원이 올해 424억원에서 651억원으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414억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관련해 총 3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가축질병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가축방역 및 동식물 검역/검사 지원 예산도 368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및 사후관리에 31억원, 시도가축방역 2백17억 5천7백만원, 살처분보상금 7백억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8억원, 동물약품 검사시설 및 장비지원 5억원도 각각 지원된다.

<표 1>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예산 (A)	'08 예산 (B)	증감 (B - A)	%
(일반회계)	90	68	△22	△24.4
· 부정축산물단속	90	68	△22	△24.4

구분	'07 예산 (A)	'08 예산 (B)	증감 (B - A)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7,358	164,883	△2,475	△1.5
• 축산분뇨처리사업	39,654	65,081	25,427	64.1
- 축산분뇨처리시설	33,225	57,566	24,341	73.3
- 유통 및 재활용	6,429	7,515	1,086	16.9
• 축산물검사	3,569	3,685	116	3.3
• 축산물 HACCP인증지원	2,045	3,060	1,015	49.6
• 시도가족방역	22,090	21,757	△333	△1.5
• 살처분보상금	100,000	70,000	△30,000	△30.0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신규)	-	800	800	순증
• 동물약품 검사시설 및 장비지원(신규)	-	500	500	순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740	1,305	△1,435	△52.4
• 축산분뇨처리사업	2,740	1,305	△1,435	△52.4
- 축산분뇨처리시설	2,054	-	△2,054	△100.0
- 유통 및 재활용	686	1,305	619	90.2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	109,104	109,104	순증
• 축사시설현대화(신규)	-	102,928	102,928	순증
• 브랜드육타운지원(신규)	-	3,200	3,200	순증
•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신규)	-	2,976	2,976	순증

축산시설 현대화에 1,029억원 지원

내년부터는 FTA이행기금에서 축사시설현대화 1천29억2천8백만원, 브랜드육 타운지원 32억원,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29억7천6백만원이 지원된다.

노후된 축사시설 개선, 가축질병 및 폐사를 줄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총 1,029억원이 지원된다. 양돈, 한우, 낙농, 양계, 오리 등 총 515개소에 보조 20%, 융자 60%를 금리 3%로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되며 전업농과 농업경영체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3년내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된다.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종합판매 타운에 32억

원을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에도 29억원을 지원한다.

축산발전기금 지원 주요사업

<표 2> 축산발전기금 주요사업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07 예산 (A)	'08 예산 (B)	증감 (B - A)	%
<축산발전기금>	603,624	705,429	101,805	16.9
• 원유수급조절	30,678	30,000	△678	△2.2
• 학급유유급식	17,672	17,672	-	-
• 축산자조사업	13,500	15,600	2,100	15.6
• 축산물수급인정	11,189	10,000	△1,189	△10.6
• 송아지생산인정	5,297	14,855	9,558	180.5
• 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	1,644	1,818	174	10.6
• 가족개량사업지원	23,739	24,564	825	3.5
• 축산종합지도위원	1,462	2,437	975	66.7
•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404	2,694	2,290	566.8
• 돼지경제능력검정	1,170	710	△460	△39.3
• 닭경제능력검정	181	511	330	182.3
• 증축등록사업지원	105	270	165	157.1
• 증축시설 현대화	-	8,492	8,492	순증
• 축산공제사업	24,382	28,673	4,291	17.6
• 마필육성사업	7,181	11,476	4,295	29.8
• 양봉산업육성사업	308	100	208	△67.5
• 축산물등급판정지원	7,249	8,858	1,609	22.2
• 육류이력추적시스템	4,191	11,557	7,366	175.8
•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2,286	3,046	760	33.2
• 가축위생방역보부지원	7,874	8,700	826	10.5
• 가축질병근절사업	15,162	11,901	△3,261	21.5
•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신규)	-	100	100	순증
• 농축산전신체협홍보(신규)	-	1,500	1,500	순증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153,020	157,941	4,921	3.2
• 브랜드경영체지원	172,655	180,200	7,545	4.4
• 사료사업지원	52,571	72,000	19,429	40.0
• 낙농체험관광(신규)	-	400	400	순증
• 송아지경제매시정현대화(신규)	-	2,000	2,000	순증

구 분	'07 예산 (A)	'08 예산 (B)	증감 (B - A)	%
•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신규)	-	3,250	3,250	순증
• 조사료생산기반	32,404	41,404	9,000	27.8
• 친환경축사시범사업	1,000	400	△600	△60.0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16,300	32,300	16,000	100.0

이와 함께 내년도에 촉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주요사업을 보면 축산물 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해 1천1백86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집유일원화 권역 내 원유수급 조절자금 300억원이 지원된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우유급식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177억원이 지원된다.

축산자조금사업에 올해 135억원에서 15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한우는 50억원, 양돈 50억원 양계 13억원, 오리 5,000만원, 양육 5,000만원 등으로 올해와 같으나 낙농은 올해 21억원에서 4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축산물수급안정사업에 1백억원, 축산공제 2백87억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1백49억원이 지원된다.

축산물 사육기반 확충 분야에는 8백57억원을 지원한다.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3억원에서 3백23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백14억원, 친환경축사 시범사업에 4억원,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1백15억원을 지원한다.

축산기술 보급에는 3백97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는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개량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종축시설현대화사업에 85억원이 지원되며, 돼지개량 네트워크 5억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도 총 250개소에 400만원 씩 신규로 보조 지원될 예정이다. 위생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축산물위생교육시설에 2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축산물유통개선·위생안전성 분야에도 금년 예산 3천9백20억원보다 4백88억원이 늘어난 4천4백8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우수브랜드 경영체 및 계열화 주체운영자금으로 1천8백2억원,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에 1천5백79억원, 가축(계란)운반 특장차량 구입비 33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사료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예산도 올해 526억원에서 720억원으로 상향됐다.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육류이력추적시스템 본 사업을 위해 소 및 돼지의 사육단계에서 판매까지 육류이력추적시스템 시행을 1백16억원을 지원(한육우 2백만두 전면 추진)하고, 축산물 등급판정 지원에 89억원, 도축검사원 운용지원에 30억원, 가축질병근절을 위해 2백7억원을 지원한다.

<표 3>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8 예산안
<예 산>	1,300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800
• 동물약품 검사시설 및 장비지원	500
<기 금>	124,846
• 축사시설현대화(FTA기금)	102,928
•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FTA기금)	2,976
• 브랜드육타운지원(FTA기금)	3,200
• 증축시설 현대화(촉발기금)	8,492
• 생계 및 소득지원(촉발기금)	100
•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촉발기금)	2,000
•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촉발기금)	3,250
• 낙농체험관광(촉발기금)	400
• 농축산 전시·체험 홍보관(촉발기금)	1,500
합 계	126,146

양돈산업 집중투자로 FTA 경쟁력 제고해야

“내년도 양돈부분 예산 추가 반영해야”

최근 농림부는 2008년도 농림예산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FTA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이 상당 부분 빠져 있어, 내년도 농림예산에 양돈부분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양돈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4월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양돈산업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대거 수렴을 통해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정부 정책과 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내년도 농림예산을 살펴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의 경우만 해도 협회가 개소당 5억~10억원 지원을 요청한 것과 달리, 정부는 150개소에 42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등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반영되거나 아예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양돈업계에서는 큰 실망감을 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 양돈부분 관련 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양돈부분 예산 추가로 반영해야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향후 5년간 양돈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2012년까지 FTA 상대국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협회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요청한 FTA 경쟁력 제고 대책에 따르면, 종돈장 청정화 사업의 경우 2,486억원, 돼지열병 청정화 대책 1,054억원, 오제스키 근절사업 104억원, 소모성질환 근절 질병차단 종합대책 911억원을 요구했으나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분뇨자원화와 관련 내년도 농림예산은 전 축종에 대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의 경우 424억원에서 65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그쳤다. 이외에도 협회는 통합양돈연구소 설립(50억원), 양돈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1,000억원), 돼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협회는 대일수출 재개를 통한 새로운 수요처 확보를 위해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시설 현대화자금도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국내산 돼지고기 차별화를 위한 생산이력제 도입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돈**